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Children's Playfulness Relativ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황윤세(Yoon Se Hwang)¹⁾

이혜원(Hye Won Lee)²⁾

ABSTRACT

The subjects in this study of children's playfulness in relation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were 247 children in Gyeo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computer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children's playfuln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nd explained by "peer relations skill" in the sub areas of social competence and "relationship with peers," "utilization of emotion" in sub area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ly competent interac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nd explained by manifest joy in the sub areas of children's playfulness.

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놀이가 교육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놀이에 대한 이해 역시 타당한 방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실제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놀이관련 연구들은 놀이에 대한 개념 정의에 초점을 둔 연구에

서 출발하여 놀이가 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창의성,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왔다. 이를 기초로 최근까지 놀이를 유아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교수법 개발, 놀이유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의 교육적 적용은 이론, 이데올로기, 철학 및 사상을 통해 놀이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 놀이 관련 초기 연구들의 다양한 이

¹⁾ 삼척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교수

²⁾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e Wo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sangmun-dong, Dobong-gu, Seoul 132-036, Korea
E-mail : carrot49@hanmail.net

론과 해석을 통해 시도되었으며,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놀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후 발달적·교육적 가치를 조명한 연구결과들과 통합되어 놀이는 학교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Pelligrini & Boyd, 1993) 받았다. 즉,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놀이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위치를 확보하였고, 현재 유아 교육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통합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행 유아 교육과정에서 놀이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놀이이론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타당한 분석을 근거로 놀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 놀이의 본질에 대한 연구나 놀이와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성 자체에 대한 연구(Barnett, 1990, 1991), 놀이에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놀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들(고소영, 2003; 김기순·박인전, 2002)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유아들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으로서의 놀이와 교육의 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의 매개로서의 놀이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놀이의 주체인 유아의 내적 심리 특성인 놀이성과 관련변인과의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놀이에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교육과 놀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고 또 놀이의 본질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 성향으로서의 놀이성과 관련된 연구들(고소영, 2003; 김기순·박인전, 2002; 한미현, 2002; Barnett, 1990, 1991; Roger, Meeks, Impara & Frary, 1991; Singer,

& Sherrod, 1980)을 살펴보면, 놀이성을 유아기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고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놀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놀이에 접근한다. Barnett(1990)는 Lieberman이 제안한 5가지 놀이성 변인에 기초하여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 CPS)를 개발하여 놀이성과 관련된 변인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의 척도에 사용된 Lieberman(1965)의 연구는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의 다섯 가지 하위요소로 유아가 가진 놀이적인 특성을 설명하였다. 신체적 자발성은 신체 전체나 일부분을 활발히 움직이는 정도와 신체 협응력의 정도를 뜻하며, 사회적 자발성은 타인과 어울릴 줄 아는 능력, 집단 내에서의 리더쉽, 자연스런 놀이 참여 능력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은 상상력, 창의력, 융통적 사고를 나타내며,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 중에 어느 정도 열성, 만족감, 즐거움, 소리를 표현하는지와 관련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정도를 뜻한다. 유머감각은 또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 하는 등의 재미있는 사건들과 식별력, 즐거운 상황들의 인식력, 세련된 장난기로 설명할 수 있다. 고소영(2003)과 김기순·박인전(2002) 역시 놀이성은 내적인 성격 특성을 일컫는 심리학적인 구인으로서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내지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놀이성을 내적인 성향으로서 이해하며 놀이성의 특성이 인지기능이나 확산적 사고와 같은 다른 영역에 나타날 수 있다(김영희, 1995; Barnett, 1991; Tegano, 1990)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면서 놀이성은 유아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격 특성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놀이

성과 유아의 성·연령차에 관한 연구들(김영희, 1995; 유애열, 1994; 이정실, 1997; Barnertt, 1991; Barnertt & Kleiber, 1982)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연령차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놀이성은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태도이고 놀이자의 내적특성이므로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Barnett, 1991)는 관점에 기초하여 놀이성과 유아들의 내적인 특징이나 성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성(고소영, 2003; 한미현, 2002), 사회적 유능감(이정실, 1997), 그리고 놀이성과 극놀이 유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최주연, 2001)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놀이성을 유아의 내적 특성으로 보고 놀이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좀 더 면밀히 탐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놀이성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놀이성의 하위 구성요소가 인지, 사회, 정서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심리적 구인으로서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적인 새로운 시각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지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Salovey와 Mayer(1990)는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문제 해결과정에는 정서적 정보가 개입된다고 보고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데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서지능을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이후에 Goleman(1995)은 정서지능에 자기의 정서를

아는 것, 정서조절, 자기동기화, 타인정서의 인지, 대인관계의 조절이라는 5가지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작용은 머리의 힘인 지능이 아니라 가슴의 힘인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되며, 인간이 정서를 사려 깊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정서는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Goleman, 1995). 정서지능이 사회·인지적 변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볼 때, 정서지능의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물론 유아들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그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은 유아를 이해하도록 돕고 유아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놀이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유능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아들의 사회화 경험은 시대적·사회적인 조류에 따라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또래들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유능감은 21세기 유아교육에서 유아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Raver & Zigler, 1997). 그런데 사회적 유능감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것으로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인지능력,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기술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선행연구들(김영옥, 2002; 이혜원, 2005; Merrell, 1999; Raver & Zigler, 1997; Schneider, 1992; Shuhui Chiu, 2001)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뿐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행동을 통합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관점(Katz & MacClellan, 1997; Shuhui Chiu, 2001)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유아의 놀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김경희, 1998)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이혜원, 2005)를 보면, 그 구성변인들이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삶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학습과 발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놀이성과 그 구성변인들의 맥락이 유사한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놀이성 및 내적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보다 의미 있는 교육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기초하여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놀이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놀이성은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6개 공·사립 유치원 9학급에서 만 3, 4, 5세 유아 247명을 임의로 선정한 후 담임교사(9명)에게 유아의 놀이성,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대상 유아는 남아가 132명으로 53.4%, 여아가 115명으로 46.6%를 차지하여 성별 구성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 구성은 만 3세 유아가 62명(25.1%), 만 4세 유아가 89명(36%), 만 5세 유아가 96명(38.9%)이었다. 유치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이 2기관(33.33%), 사립유치원이 6기관(66.67%)이었으며, 담임교사의 특성은 학력은 전문대졸이 6명(6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졸이 3명(33.33%)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3-5년 미만이 4명(44.44%), 5-7년 미만이 4명(44.44%), 1-3년 미만이 1명(11.12%)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놀이성 평정도구

유아의 놀이성의 측정을 위한 평정도구는 Liberman(1977)이 개발한 놀이성의 5개 요소 척도에 기초하여 유아들의 놀이성 성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Barnett(1990)의 유아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을 유애열(1994)이 번안하여 연구에 사용한 것이다. 놀이성의 구성요소는 신체적 자발성(4), 사회적 자발성(5), 인지적 자발성(4), 즐거움의 표현(5), 유머감각(5)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23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평정점수는 0점, 약간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거의 그렇다 3점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신뢰도 Cronbach α 는 .84에서 .90이었다.

2)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도구

유아의 정서지능 측정을 위한 평정도구는 김경희(199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구성요소는 자기정서의 이용(1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10),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9),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9), 교사와의 관계(5), 또래와의 관계(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반대로 기술한 쌍으로 된 50문항을 읽고 담임 교사가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한다. 평균점수는 1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 α 는 .73에서 .92이었다.

3)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정도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측정을 위한 평정도구는 이해원(2005)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구성요소는 정서조절(12), 정서성(9), 사회적 규범 이해(8), 또래관계기술(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다. ‘교사용 유아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각각 1점-5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에서 .94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05년 7월 1째 주부터 7월 3째 주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각 유치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3가지 평가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유아들의 놀이성,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에게 최근 1개월 동안의 유아의 평균적인 일상적 행동을 중심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 사전교육 후 교사들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니면서 모든 교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검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자간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각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변인들(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각각의 관련변인들이 갖는 놀이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분석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놀이성에 대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수준에 따른 차이는 Scheffe 사후검증절차를 통해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의 영향력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먼저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유아의 놀이성 전체 평균은 3.51로($SD=.51$)이었으며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신체적 자발성의 평균이 3.67($SD=.75$)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적 자발성이 3.27($SD=.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3.72($SD=.65$)로 5점 척도인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높은 편이며,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의 평균이 3.90($SD=.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의 평균이

3.64($SD=.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은 3.48($SD=.47$)로 '보통이다(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하위요인 별로는 정서조절의 평균이 3.67($SD=.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성의 평균이 3.18($SD=.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놀이성의 5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정서지능의 6개 하위요인과 사회적 유능감의 4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놀이성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기술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또래와의 관계, 자기정서의 이용이 유의한 설명

<표 1> 놀이성과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47)

관련 변인	하위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1.50	5.00	3.67	.75
	사회적 자발성	1.40	5.00	3.50	.68
	인지적 자발성	1.50	5.00	3.27	.57
	즐거움의 표현	2.00	4.80	3.51	.68
	유머 감각	2.10	5.00	3.58	.66
	전 체	2.09	4.74	3.51	.51
정서지능	자기정서의 이용	2.00	5.00	3.65	.78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80	5.00	3.68	.71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1.78	5.00	3.90	.73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1.67	5.00	3.64	.74
	교사와의 관계	1.20	5.00	3.80	.85
	또래와의 관계	1.20	5.00	3.70	.72
	전 체	2.04	5.00	3.72	.65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1.36	4.80	3.67	.74
	정서성	1.80	4.30	3.18	.46
	사회규범이해	1.75	5.00	3.66	.72
	또래관계기술	1.75	5.00	3.47	.64
	전 체	1.83	4.24	3.48	.47

〈표 2〉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관계기술	.601	.755	18.041***	325.479***	.571	
2	또래와의 관계	.259	.366	7.064***	220.179***	.643	.072
3	자기정서의 이용	.169	.235	4.798***	167.706***	.674	.031

*** $p<.001$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 변인에 대해 설명력을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기술($F=325.479, p<.001$)이 5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또래와의 관계($F=220.179, p<.001$)가 첨가됨으로써 7%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의 이용($F=167.706, p<.001$)이 추가될수록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67.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의 크기 순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 자기정서의 이용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사회적 유능감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이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과 사

회적 유능감의 요인 중 놀이성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또래관계기술과 또래와의 관계, 자기정서의 이용이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또래관계기술과 또래와의 관계, 자기정서의 이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 한 결과, 또래관계기술, 정서조절, 또래와의 관계, 자기정서의 이용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F=93.896, p<.001$)이 3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조절($F=58.414, p<.001$)이 첨가됨으로써 4.8%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F=47.884, p<.001$)가 2.3%의 설명력을 자기정서의 이용($F=41.173, p<.001$)

〈표 3〉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관계기술	.606	.526	9.690***	93.896***	.324	
2	정서조절	-.284	-.284	-4.106***	58.414***	.372	.048
3	또래와의 관계	.310	.304	4.297***	47.884***	.405	.023
4	자기정서의 이용	-.274	-.263	-3.687***	41.173***	.425	.020

*** $p<.001$

〈표 4〉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관계기술	.842	.792	20.290***	411.673***	.627	
2	또래와의 관계	.283	.300	6.079***	254.528***	.676	.049
3	사회규범 이해	.204	.217	3.639***	182.613***	.693	.017

*** $p < .001$

이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4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또래관계기술과 또래와의 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과 자기정서의 이용의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적 자발성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 한 결과, 또래관계기술, 또래관계, 사회규범 이해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을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F=411.673$, $p < .001$)이 6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F=254.528$, $p < .001$)가 첨가됨으로써 5%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사회규범 이해($F=182.613$, $p < .001$)가 1.7%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69.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한

결과, 또래관계기술, 또래와의 관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살펴보면,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F=57.527$, $p < .001$)이 1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F=33.436$, $p < .001$)가 첨가됨으로써 2.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2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음의 <표 6>은 즐거움의 표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다.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즐거움 표현에 대한 관련변인(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 분석 한 결과, 또래와의 관계, 또래관계기술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 표현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F=154.987$, $p < .001$)가 3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 기술($F=91.896$, $p < .001$)이 첨가됨으로써 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4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5〉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관계기술	.390	.436	7.585***	57.527***	.190	
2	또래와의 관계	.170	.214	2.785***	33.436***	.215	.025

*** $p < .001$

〈표 6〉 즐거움의 표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와의 관계	.454	.622	12.449***	154.987***	.387	
2	또래관계기술	.229	.278	.238***	91.836***	.429	.042

*** $p < .001$

다음의 <표 7>은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유머 감각에 대한 관련변인(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또래와의 관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또래관계기술, 자기정서의 이용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를 보면, 유아의 유머 감각에 대하여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F=70.972, p < .001$)가 3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F=52.742, p < .001$)가 첨가됨으로써 9.6%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F=43.821, p < .001$)이 첨가됨으로써 5.6%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의 자기정서의 이용($F=37.706, p < .001$)이 첨가됨으로써 3.6%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53.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유아의 유머감각은 또래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기술의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의 조절 및 충

동억제와 자기정서의 이용의 점수가 낮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놀이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각 변인인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의 전체 점수 중 상위 30%에 속하는 집단을 상위집단으로, 하위 30%에 속하는 응답자를 하위집단으로, 나머지 중간 40%를 중간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놀이성에 있어서 이들 각 변인의 집단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놀이성은 사회적 유능감($F=35.423, p < .001$)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정서지능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

〈표 7〉 유머 감각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하위 요인	B	β	t	F	R ²	ΔR^2
1	또래와의 관계	.591	.586	8.424***	70.972***	.343	
2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357	-.428	-4.798***	52.742***	.439	.096
3	또래관계기술	.405	.366	3.876***	43.821***	.495	.056
4	자기정서의 이용	-.305	-.323	-3.204*	37.706***	.531	.036

* $p < .05$ *** $p < .001$

<표 8> 놀이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정서지능(A)	.826	2	.413	3.027
사회적 유능감(B)	9.662	2	4.831	35.423***
A×B	1.169	4	.292	2.143
오차	32.460	238	.136	
전체	3074.914	247		

*** $p<.001$

가 없었다.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놀이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하위요소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놀이성의 하위요소별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놀이성 전체($F=35.42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놀이성 전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상집단의 평균은 $4.00(SD=.39)$, 중집단의 평균은 $3.73(SD=.32)$, 하집단의 평균은 $3.02(SD=.42)$ 으로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유아의 놀이성 전체의 점수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놀이성의 하위변인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에서는 상, 중,

<표 9>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놀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F 값 M(SD)

놀이성 하위요인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			F 값	
		상(n=74)	중(n=99)	하(n=74)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
신체적 자발성	상(n= 76)	4.17(.69)	3.84(.56)	3.03(.44)	.317	11.825*** (상>중>하)
	중(n=100)	4.02(.58)	3.64(.65)	3.11(.88)		
	하(n= 71)	3.81(.37)	3.38(.71)	3.46(.60)		
사회적 자발성	상(n= 76)	4.19(.69)	3.85(.36)	3.07(.25)	5.648* (상, 중>,하)	47.055*** (상>중>하)
	중(n=100)	4.02(.58)	3.57(.38)	2.99(.64)		
	하(n= 71)	3.61(.37)	3.28(.43)	2.74(.57)		
인지적 자발성	상(n= 76)	3.60(.52)	3.25(.35)	2.93(.44)	.081	11.589*** (상>중>하)
	중(n=100)	3.47(.59)	3.27(.66)	3.03(.63)		
	하(n= 71)	3.81(.38)	3.13(.41)	2.97(.27)		
즐거움의 표현	상(n= 76)	3.99(.36)	3.92(.64)	3.05(.49)	6.597* (상>중, 하)	14.996*** (상>중>하)
	중(n=100)	3.50(.38)	3.45(.75)	3.15(.54)		
	하(n= 71)	3.32(.43)	3.32(.45)	3.20(.38)		
유머감각	상(n= 76)	4.04(.68)	3.67(.73)	3.24(.72)	.282	6.656* (상,중>하)
	중(n=100)	3.83(.88)	3.85(.75)	3.25(.99)		
	하(n= 71)	4.23(.33)	3.40(.59)	3.23(.58)		
전체	상(n= 76)	4.00(.39)	3.73(.32)	3.02(.42)	3.027	35.423*** (상>중>하)
	중(n=100)	3.68(.39)	3.48(.37)	3.07(.50)		
	하(n= 71)	3.76(.21)	3.28(.33)	3.08(.31)		

* $p<.05$ ** $p<.01$ *** $p<.001$

하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머감각 하위요인에서만 상집단($M=4.04$, $SD=.68$)과 중집단($M=3.67$, $SD=.62$)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하집단($M=3.24$, $SD=.73$)의 유머감각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적 자발성($F=5.648$, $p<.05$)과 즐거움의 표현($F=6.597$, $p<.05$) 하위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발성은 상집단($M=4.19$, $SD=.69$)과 중집단($M=4.02$, $SD=.58$)의 점수는 하집단($M=3.61$, $SD=.37$)의 점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의 표현은 상집단($M=3.99$, $SD=.36$)의 점수는 중집단($M=3.50$, $SD=.38$)과 하집단($M=3.38$, $SD=.43$)의 점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즐거움의 표현 점수는 중집단과 하집단은 차이가 미미하다가 상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상호작용은 놀이성 전체와 하위요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성 전체 및 놀이성의 하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놀이성 전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소인 또래 관계기술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소인 또래와의 관

계, 자기정서의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유능감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지능이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 관계기술,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정서의 이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조절의 하위요소인 또래와의 관계와 자기정서의 이용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한미현(2002)은 놀이성에 대해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 중 타인정서의 인식과 배려를 제외한 모든 요소-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와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취볼 때, 놀이성 전체에 대해 정서지능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놀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들이 긍정적 정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Singer & Rummo, 1973; Singer & Sherrod, 1980)는 연구결과도 놀이성과 정서지능의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중 또래와의 관계와 자기정서의 이용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한미현의 연구와는 하위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점은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논의를 하기 어렵지만, 한미현의 연구는 부산지역의 어린이집 2곳의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설계 상의 차이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따라서 놀이성 전체에 대해 정서지능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긴 하나, 그 하위요소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소 중 또래관계기술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선행연구들(권연희, 2003; 이경희, 1993; Denham, 1986; Eisenberg, Fabes, & Murphy, 1996)들은 또래관계기술과 유사한 용어인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기술이 사회적 유능감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한 요소인 또래관계기술이 놀이성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의 놀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소인 또래관계기술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축소하고 하고자 한다. 우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3, 4, 5세는 사회적 놀이가 왕성한 시기라는 점에서 또래관계기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아교육기관은 최초의 체계적 사회화를 이행하는 공식적인 장으로 규정(최기영, 1985)되어 사회화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들의 놀이에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또래관계기술이 놀이를 통해 더욱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아들의 놀이 세계가 확장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놀이성의 하위요인(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 대해 관련 변인인 정서지능(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과 사회적 유능감(정서조절, 정서성, 사회적 규범의 이해, 또래관계기술)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놀이성의 하위요소 중 신체적 자발성에 대해서는 또래관계기술, 정서조절, 또래관계, 정서이용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에 대해서는 또래관계기술, 또래관계, 사회규범의 순이었으며, 인지적 자발성에 대해서는 또래관계기술, 또래관계의 순이었으며, 즐거움의 표현에 대해서는 또래관계, 또래관계기술의 순이었으며, 유머감각에 대해서는 또래관계, 감정 조절, 또래관계기술, 정서이용의 순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놀이성의 하위요소 중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이었으며,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도 놀이성의 모든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아동의 놀이성 군(群)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에 대한 연구(김영희, 1995)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간의 적응이 놀이성 모든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김영희, 1995)의 결과를 통해 유아들의 놀이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또래관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함께 놀이하는 친구가 많으며, 놀이를 주도해가거나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래관계기술이 높은 유아는 놀이에 더 잘 몰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놀이성의 하위 요소인 신체적 자발성과 유머 감각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자발성에 대해 사회적 유능감의 정서조절, 정서지능의 자기정서의 이용이, 그리고 유머

감각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자기정서의 이용이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이성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고소영(2003)과 유애열(2004)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앞의 연구들은 놀이성 전체와 창의성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놀이성의 하위요소인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 즐거움의 표현은 창의성과 상관이 없는 것(고소영, 2003)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성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일관되는 연구결과를 내릴 수가 없다고 여겨지며, 후속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점수의 차이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정서지능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따른 놀이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하위요소별로 알아본 결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놀이성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은 즐거움의 표현 하위요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놀이성의 하위요소 중 즐거움의 표현만이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놀이에서 즐거움의 표현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보면, 놀이성의 하위요소와 관련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성과 창의성(고소영, 2003), 사회적 능력(이경실, 1997) 등이 있다. 고소영(2003)은 사회적 자발성만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경실(1997)은 놀이성 전체 및 그 하위요소에 대해 사회적 능력의 지도력과 유능성은 정적상관을 보이며, 불안정성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놀이성은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놀이성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놀이활동이 사회성 발달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은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정서지능에 대해서는 놀이성의 즐거움의 표현에서만 유의미한 차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놀이의 기쁨에 대한 김희연(2004)의 연구를 통해 논의해보면, 김희연은 기쁨의 표현을 놀이행동과 비놀이 행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쁨의 표현은 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수단이라는 Pellegrini(1991)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놀이에서의 기쁨과 유사한 맥락인 즐거움의 표현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 주었다.

놀이의 즐거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구성되며,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Averdill, 1980)이며 기쁨의 근거는 놀이라는 맥락의 역동적 체계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이에서 관찰된 기쁨의 표현은 개인의 내적 동기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과정에서 촉발되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김희연(2004)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을 통해 놀이성 및 그 하위요소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놀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또래관계기술이었으며, 정서지능의 또래와의 관계와 자기정서의 이용도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에서의 차이는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정서지능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놀이성의 하위변인이 즐거움의 표현이 두 관련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지적됨을 통해 놀이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놀이에서의 즐거움의 요소와 학습자인 유아,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육·학습방법에 대한 조화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재차 되새겨 줌과 동시에 이를 실재화 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들의 놀이를 놀이성이라는 특정도구에 한정하여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놀이성은 유아놀이의 심리적 성향 및 경향 접근으로 놀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놀이행동과 맥락에서 놀이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변인들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놀이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연령, 연구대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이들 변인 간에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놀이성의 하위요소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는 물론 연구대상과 다양한 연구설계를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측정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놀이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유아의 놀이성 측정 도구를 포함하여 유아들의 놀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소영(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순·박인진(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1(5), 27-43.
- 김영옥(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전략.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함양* 한국어린이 육영회 2002 유아교육학술대회, 54-91.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群)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연(2004). 놀이의 기쁨-정서표현과 그 맥락적 특성. *아동학회지*, 25(5), 193-208.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실(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기영(198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초기사회화과정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주연(2001). 극놀이 유형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verdill, J. R.(1980). A constructivist view of emotions.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s* :

-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New York : Academic Press.
- Barnett, L. A.(1990).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 _____.(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rnett, L. A., & Kleiber, A. K.(1982). Concomitants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115-127.
- Denham, S. A.(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Eisenberg, N., Fabes, A., & Murphy,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Katz, L. G., & McClellan, D. E.(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Vol. 8.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 Lieberman, H. N.(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_____.(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San Francisco. London. Academic Press.
- Merrell, K. W.(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hwah, N. J. : Erlbaum Associates.
- Pellegrini, A.(1991). A longitudinal study of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s rough and tumble pla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3), 205-213.
- Pellegrini, A. D., & Boyd, B.(1993). The role of play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Issues in definition and function. In B. Spode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young children(pp.105-121)*. NY : Mcmillan.
- Raver, C. C., & Zigler, E. F.(1997). Social competence :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oger, C. S., Meeks, A. M., Impara, J. C., & Frary, R. B.(1991). *Measuring playfulness :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Manuscript submitted of Publication.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chneider, P. J.(1992). *An Individual-Difference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Shuhui Chiu.(2001). *Exploring kindergartners' social and cognitive competence : an application of ECLS-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Singer, D. G., & Rummo, J.(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1.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Tegano, D. W.(1990). Relationship of ambiguity and playfulness to creativity. *Psychological Report, 66*, 1047-1056.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0월 31일 채택